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청사진 제시 -

EU·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가 속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을 가리지 않고 공급망 실사에 대한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감은 특히 원청기업이 ESG리스크 관리를 요구할 경우 관련 여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22. 12. 7.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1. 배경

세계화가 진행되며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공급망이 전세계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의 공급망에서는 각종 인권·환경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공급망 실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법제화까지 진척시켜 기업들이 자신의 공급망에 연결된 협력사의 인권 및 환경 등에 대한 침해여부를 조사·시정·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강력한 제재를 구비한 법률을 2023년 시행예정이고, EU의회는 2021. 3.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에 따라 EU집행위가 2022. 2. 23.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발표하고 2024년 그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급속한 변화와는 상반되게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들의 관련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2. 6.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개 수출업체에 대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2%가 향후 공급망 내 ESG경영수준 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3. 31.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2. 12. 7.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EU 등 주요 국가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를 상대로 한 ESG리스크 실사 동향에 대응하여,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ESG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의 진단·실사 지표 분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K-ESG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습니다.

나. 개발 과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산업별 ESG이니셔티브 및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ESG진단과 실사 체계 조사를 바탕으로 ESG진단항목체계를 설계하였으며, 진단 항목은 주요한 공급망 진단과 실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선정하였습니다.

그 후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대응 K-ESG가이드라인 진단항목정의서 고도화 과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내 규제와의 정합성 검토를 통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국정현안 및 정책과제 등을 추가지표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업규모-ESG경영 현 수준 등을 참작하여 단계별 대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기초와 심화로 이원화 하였습니다.

다. 기초진단항목체계

기초진단항목체계는 국내외 주요기업의 공급망 행동규범과 산업 이니셔티브의 실사 가이드라인을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표를 핵심 진단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각 기업 및 산업 이니셔티브가 중대 위협요인으로 보는 부문을 중소중견기업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규제를 반영하고 대규모 자원 투자가 필요한 항목보다는 절차 보완과 제도 개선 등으로 빠르게 해결 가능한 항목이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영역	범주	진단항목
환경	환경경영체계	- 환경정책 수립 - 환경 인허가 획득
	자원	- 원부자재 사용량
	에너지 및 온실가스	- 에너지 사용량 - 온실가스 배출량
	유해물질	-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 -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 폐기물 배출량
	대기오염	- 대기 및 소음 관리
	수질오염	- 용수 및 폐수 관리
사회	노동	- 단체교섭 및 집회 참여
	인권	- 강제근로 금지 - 아동노동 금지 - 근무시간 준수 - 임금산정 및 지급
	안전보건 체계	- 안전보건 인허가 획득
	작업환경개선	- 작업환경 측정 - 설비기계 안전 사용 - 산업재해율
	산업재해 예방	- 비상상황 대응체계 - 소방안전 관리
지배 구조	윤리경영	-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 비윤리 행위 예방 조치 - 반경쟁 행위 예방 조치 - 공익제보자 보호

라. 심화진단항목체계

심화진단항목체계는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4개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외 ESG공시 및 평가기준에서 공통으로 제시하는 이슈를 기반으로 특정 조직이 ESG경영을 통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정성·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아래는 기초진단항목체계에서 추가 된 부분만을 기재한 것입니다.

영역	범주	진단항목
정보 공시	정보공시 형식	- ESG정보공시 방식 - ESG정보공시 주기 - ESG정보공시 범위 -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환경경영 체계	- 환경경영 추진체계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비율
	자원	- 폐제품 수거 및 재활용
	에너지 및 온실가스	-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대기오염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	- 용수 사용량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사회	노동	- 정규직 비율 - 결사의 자유 보장
	인권	- 인권정책 수립 - 고충처리 절차
	다양성 및 양성평등	- 여성 구성원 비율 -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 장애인 고용률
	안전보건 체계	- 안전보건 추진체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비율
	작업환경 개선	-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예방	- 비상출구 시설관리 - 환경 및 식품위생관리 - 안전보건 의사소통
	동반성장	- 책임 원자재 조달 정책 - 원자재 생산지 리스크 점검
	지역사회	- 전략적 사회공헌 - 구성원 사회봉사
	정보보호	-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고객관계	- 고객만족 대응 체계 - 광고 및 홍보 윤리
지배 구조	윤리경영	- 정보공개 투명성 -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3. 시사점

앞서 언급한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수출기업 300여개 사의 2022. 6. 조사에 따르면, 공급망 ESG 실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를 뽑았다고 합니다(35.5%). 이는 공급망 실사에 대해 경각심과 위기심을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관련한 지침 등의 부재가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은 비록 업종별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나, 관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00여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진단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나서겠다 발표하였고, 2023년부터 업종별 가이드라인도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은 위 가이드라인과 향후 마련될 지침을 검토하여 대책 마련에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T. (+82) 2 6182 8505

E. kangsj@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